Tiger (; Macan)

Loco

중계본동 중계 주공 7단지에서
재현고까진 어림잡아 삼십 분
은행사거리의 사거리를 한참이나
지나오면 운전면허학원 입구
수능이 끝나니 거리로 쏟아지는
핸들을 잡아보라는 수많은 전단지들
난 그걸 사뿐하게 즈려밟고 지나쳐
관심 없어 그냥 빨리
새 삥 자전거 자물쇠 키나 줘
아무리 계산해봐도 나의 이십 대
삼십 대의 돈벌이로는
뚜벅이의 인생을 면치 못할 거니까
계속 지나쳐도 돼
결국 그걸 배울 돈으로 난 재수학원에
7년이 더 지났고 이젠 2015년
뜨거운 여름 예상대로 난 뚜벅이야
근데 뜬금없이 AOMG 김수혁 이사님이
운전면허증의 유무를 물어봐

이제야 낼 수 있는 추임새
아직도 기분 찌릿해
어디든지 갈 수 있게 등에 올라탄
다음엔 그냥 편하게 seat back and relax
난 몰고 있어 호랑이
검은 색깔의 호랑이
지금 몰고 있어 호랑이
이렇게 빨리 올진 몰랐지

Respect respect respect yourself
아직까지도 난 외쳐대고 있지 셀 수 없게
Good morning, 10m 주행을 위해서
난 새로운 신분증을 따야만 했지 급하게
난 이제 오빠 차에 감정이입이 가능한
뚜벅이 출신 초보운전 겸손하게 속도를 줄였지
작업실은 논현동 한복판에
항상 숨 막히는 퇴근 시간에 이동할 때
날 위협하는 트럭 아저씨는 얄짤이 없어
양옆에 문짝은 도화지가 돼버렸고
도둑고양이가 된 듯 새벽 길만 어슬렁
거리다 보니 좀 더 쎈캐가 필요해졌어
그래서 난 주문했지 검은색의
지금 타고 있는 호랑이
그림을 그리고 있어 검은색의
좀 더 커다래진 도화지

이제야 낼 수 있는 추임새
아직도 기분 찌릿해
어디든지 갈 수 있게 등에 올라탄
다음엔 그냥 편하게
Seat back and relax
난 몰고 있어 호랑이
검은 색깔의 호랑이
지금 몰고 있어 호랑이
이렇게 빨리 올진 몰랐지

Seat back relax
My life is bleached...

Tištěno z pisnicky-akordy.cz
Sponzor: www.srovnavac.cz - vyberte si pojištění online!